

서울 양서초등학교

2학년 3반 김제윤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고 덥다.

제목 : 자전거 타기

엄마랑 나랑 같이 자전거를 탔다.  
놀이터를 열바퀴 돌고 동네 한바퀴를 돌았다.  
다리가 힘들고 손도 땀고 친척내 몸이 더운  
지만 재미있었다. 다음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었다. 맛있었다. 설렁탕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 엄마가 휴식으로 아이스크림을 한개씩  
먹었다. 초코맛이 맛있었다. 집어간 후에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을 본다.  
아주 아주 재미있었다.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본다. 아주 개그맨들이 웃겼다.  
나는 너무 지쳐서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푹 푹 잤다. 일요일은 너무 신났었다.  
다음 일요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하늘 위로 빙빙  
올라갔다. 난 너무 행복했다. 우리 엄마도  
좋았을 텐데... 엄마도 행복했다고 말해  
주면 좋겠다. 다음에는 우리 언니랑 아빠가  
시간이 있다면 또 먹고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